

‘스맨파’ 어때 “남자 춤·여자 춤 아닌 누구나 추는 춤 불리길”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름보다 ‘어때’ 춤 보여주고파”
“저희 무대 보고 ‘힐링이 된다’ 말들이 원동력이다”

“저희의 목표는 ‘스맨파’ 우승이 아니었어. ‘어때’가 추는 춤을 보여주고 싶었어.”(테드)
엠넷(Mnet) ‘스트릿 댄 파이터’에 출연한 여덟 크루 중 ‘어때(EO-DDAE)’는 젠더리스 퍼포먼스에 특화된 팀이다. ‘어때? 잘해-’라는 팀 구호명답게 젠더리스뿐만 아니라, 걸리쉬, 힙합, 코레오그래피(창작 안무) 등 다장르를 소화한다. 이들은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름보다 ‘어때’의 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어때. 이들은 매 경연마다 서로 상처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7일 화상으로 만난 리더 테드는 “사실 ‘스맨파’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운이다. 우승보단 서로 상처 안 주고,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맨파’ 1회에서는 모든 크루가 첫 대면식을 갖는 장면이 송출됐다. 이때 ‘어때’의 퍼포먼스를 본 타 크루들의 평가가 이어졌고 그 중에는 “남자구나”, “나는 이런 거 좀 불편하거든”라는 평이 존재했다. 짝막한 말 한 마디. 이러한 것들은 ‘어때’가 ‘스맨파’에 출연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들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계급 미션 때부터 ‘파이트 저지’(심사위원)로부터 “어때스러운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때스러움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으며 ‘어때스러움이 뭐지?’라는 혼란에 빠졌다고. 그러나 이들은 크루의 장점인 다채로운 춤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여러 장르를 한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뮤즈 오브 스맨파’ 미션에서는 “날개 달았네”라는 극찬과 함께 인정 받았다.
가수 비의 신곡 안무 창작 미션 결과와 ‘뮤즈 오브 스맨파’ 점수를 합산한 세미 파이널

최종 결과에서 ‘어때’는 비록 6위로 탈락했지만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점점 우리 것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크루원 이조는 ‘스맨파’ 출연으로 팀이 더욱 끈끈해졌다고 밝히며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데 시청자 분들이 저희의 춤을 일부만 보셨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고정관념이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탈락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킹키는 “저희의 무대를 보고 ‘힐링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말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며 “스맨파’ 초창기에는 방송으로 생각하기 보다 정말 진심으로 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이고, 쇼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했어도 됐는데 너무 춤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만 해서 아쉽다. 좀 더 영리했어도 됐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명 ‘남자 춤’, ‘여자 춤’이 아닌 누구나 추 수 있는 춤을 지향한다는 ‘어때’는 매 경연마다 파격적인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각에서는 “장르에 대한 편견을 깬다”는 평가를 받기도. 이에 대해 킹키는 “일단 감사하다. 저희가 무대를 통해 원했던 반응이 그



런 것이었다”며 “하지만 ‘편견을 깬다’는 말조차 없게끔 춤을 춰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추 수 있는 춤으로 더 노력하고 알려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한편 ‘어때’는 오는 19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인천, 부산, 서울, 창원 등에서 열리는 ‘스트릿 댄 파이터’ 전국투어 ‘온 더 스테이지(ON THE STAGE)’에 참여한다.
뉴스1

템페스트, 미니 3집 ‘온앤온’ 예약판매 시작

그룹 템페스트(TEMPEST)가 미니 3집 ‘온앤온’으로 컴백한다.
7일 소속사 위에와 엔터테인먼트는 템페스트가 오는 22일 세 번째 미니앨범 ‘온앤온(ON and ON)’을 발매하고 7일 오후 3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사이트를 통해 ‘온앤온’의 예약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템페스트 공식 SNS에서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했다. 일곱 멤버의 모습을 흑백으로 표현한 포스터에서 앨범명 ‘온앤온’과 발매일을 공개해 3개월 만의 컴백을 공식화했다.
‘그린(Green)’과 ‘블루(Blue)’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에는 96페이지 분량의 포토북을 비롯해 리릭 페이지(버전별 1종), 포스트 카드(버전별 7종 중 랜덤 1종), 인몰 스티커(버전별 7종 중 랜덤 1종), 템페스트 로고 스티커(로고 타입&심볼), 포토 카드(버전별 21종 중 랜덤 2종), 접지 포스터(버전별 2종 중 랜덤



1종)가 포함된다.
초도 한정으로 홀로그램 포토 카드(버전별 7종 중 랜덤 1종)와 일부 수량에 한해 플라로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거센 폭풍을 뜻하는 템페스트는 지난 8월 발매한 미니 2집 ‘샤이닝 업(SHINING UP)’으로 총동 7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남자아이돌(신인)’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뉴진스, ‘뉴진스 코드 in 부산’ 마무리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며 첫 단독 예능 프로그램을 마쳤다.
7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이날 0시 5분 방송된 SBS ‘뉴진스 코드 in 부산’에서 깜짝 생일파티부터 감동적인 드론쇼 감상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저장했다.
다도 체험을 하러 간 뉴진스는 칼라만시 차를 마신 사람을 찾는 라이어 게임을 진행했다. 2명의 라이어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시간에 다섯 멤버 모두가 자신이 라이어라고 생각해 웃음을 자아냈다. 재개된 게임에서 라이어 민지와 하니가 환상의 호흡으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들은 “이것이 팀워크”라며 기뻐했다.
이후 전포공구길로 향한 뉴진스는 1시간 동안 물건을 구매해 무게 722g을 맞추는 미션을

진행했다. 계획과 민지, 헤인과 행동과 하니, 다니엘, 헤린으로 팀을 나눠 서로 다른 스타일로 쇼핑을 즐겼다. 미션의 승리는 민지와 헤인에게 돌아갔고, 두 사람은 촬영일 기준 생일을 앞둔 하니에게 오리 모양 초콜을 선물하며 주석 생일 파티를 열었다.
뉴진스에게 준비된 마지막 만찬은 조개구이와 다양한 해산물 요리였다. 이들은 야무진 먹방을 펼친 뒤 배지 획득을 건 말기 게임에서 승부욕을 불태웠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헤린이 배지 8개를 받아 최종 1등을 차지했다.
뉴진스는 서로 획득한 배지를 조합해 ‘뉴진스 코드 in 부산’이라는 글자 암호를 풀었다. 1등 선물인 요트투어를 즐기러 간 헤린은 “여러분이 배지를 모아 주었기 때문에 같이 (요트를) 타겠다”고 말해 뉴진스의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다. 요트를 탄 멤버들은 “꿈꾸는 것 같다”며 데뷔 활동부터 부산 여행까지의 속마음을 밝혔고, 광안대교 전광판에 새겨진 환영 문구와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부산의 매력이 푹 빠졌다.
한편, SBS ‘뉴진스 코드 in 부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를 기원하며 큐알코드를 이용해 부산 곳곳을 여행하는 뉴진스의 첫 단독 예능 프로그램이다.
뉴스1

배우 박은빈, 美 아태시네마&TV ‘라이징 스타상’ 수상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수상 영예

배우 박은빈이 미국 비평가협회 주관 행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은빈은 지난 5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페어몬트센추리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TV(Asian Pacific Cinema & Television)’에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TV 부문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태평양 시네마&TV’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시상식으로, 미국 비평가협회에서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영화와 방송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박은빈은 영상을 통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제갈할 수 있게 한 작품이다. 우리

의 감성이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정말 기뻐다”며 “문화가 달라도 느끼는 감정이 비슷할 수 있다는게 큰 위안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많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특별한 시간들을 선사해 준 우영우에게도, 우영우월드를 창조해 주신 유인식 감독님, 문지원 작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박은빈은 1996년 아동복 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스토브리그’, ‘연모’ 등으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올해 6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자체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박은빈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첫 아시아 팬미팅 투어 ‘은빈노트 : 빈칸’을 통해 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등 현지 팬들을 만나고 있다.

‘복덩이들고’ PD “송가인·김호중 미팅한 그날 기획 완성”



TV 조선 ‘복덩이들고’(GO) 이세훈 PD가 방

송 탄생 과정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 PD는 가수 송가인·김호중과 첫 만남을 떠올리며 “두 분을 미팅한 그날 (방송이) 기획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꿈꾸는 예능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저희가 그런 걸 얘기해도 되냐고’ 당황했지만, 점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그릇 가수 대표 2명을 한 자리에 모아 했던 만큼 섭외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 PD는 “3개월여간 섭외 과정 자체가 프로그램이 될 만큼 블록버스터 영화급이었다”며 “두 사람이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자는 뜻을 함께 해 풀라보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역조공 서비스 프로젝트라는 취지에 맞게

두 사람은 어디든 무대로 삼았다. 시골 분교, 외딴 섬 배 선착장, 시내 길거리에서도 열창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두 사람은 “가수를 꿈꾸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언제부터 큰 무대만서는 스타였다고 그러냐”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송가인과 김호중은 “복을 나눠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복을 받아가는 것 같다”며 “매번 촬영이 기대되고 신나고 또 재밌다”고 프로그램에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PD는 “전문 진행자도 없고, 전문 예능인도 아니라 어설픈 수도 있고 뺑뺑 터지는 웃음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는 두 사람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복덩이들고’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국민 복덩이’ 남매로 뭉쳐 팬들이 부르는 곳으로 향해 노래를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9일 오후 10시 첫 방송.

박정현, 가을 발라드로 컴백...‘말 한 마디’

오는 11일 싱글 앨범 발매

가수 박정현이 가을 발라드로 돌아온다.
박정현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싱글 ‘말 한 마디’를 발매한다. ‘말 한 마디’는 박정현의 2022년 ‘포 시즌즈(4 Seasons)’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담은 곡이다.
앞서 박정현은 지난 1월 ‘다시 겨울이야’를

시작으로 4월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 7월 ‘하늘을 날다(Hot Air Balloon)’ 등 각 계절에 어울리는 곡을 발표했다.
박정현은 두번째 트랙 ‘콘스텔레이션스(Constellations)’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곡은 지난 봄 싱글 타이틀곡이었던 ‘이름을 잃은 별을 이어서’의 영어 버전이다. 박정현이 직접 작사해 한국어 버전과는 또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